

“마음건강 심리진단 및 고위험군 치료연계 사업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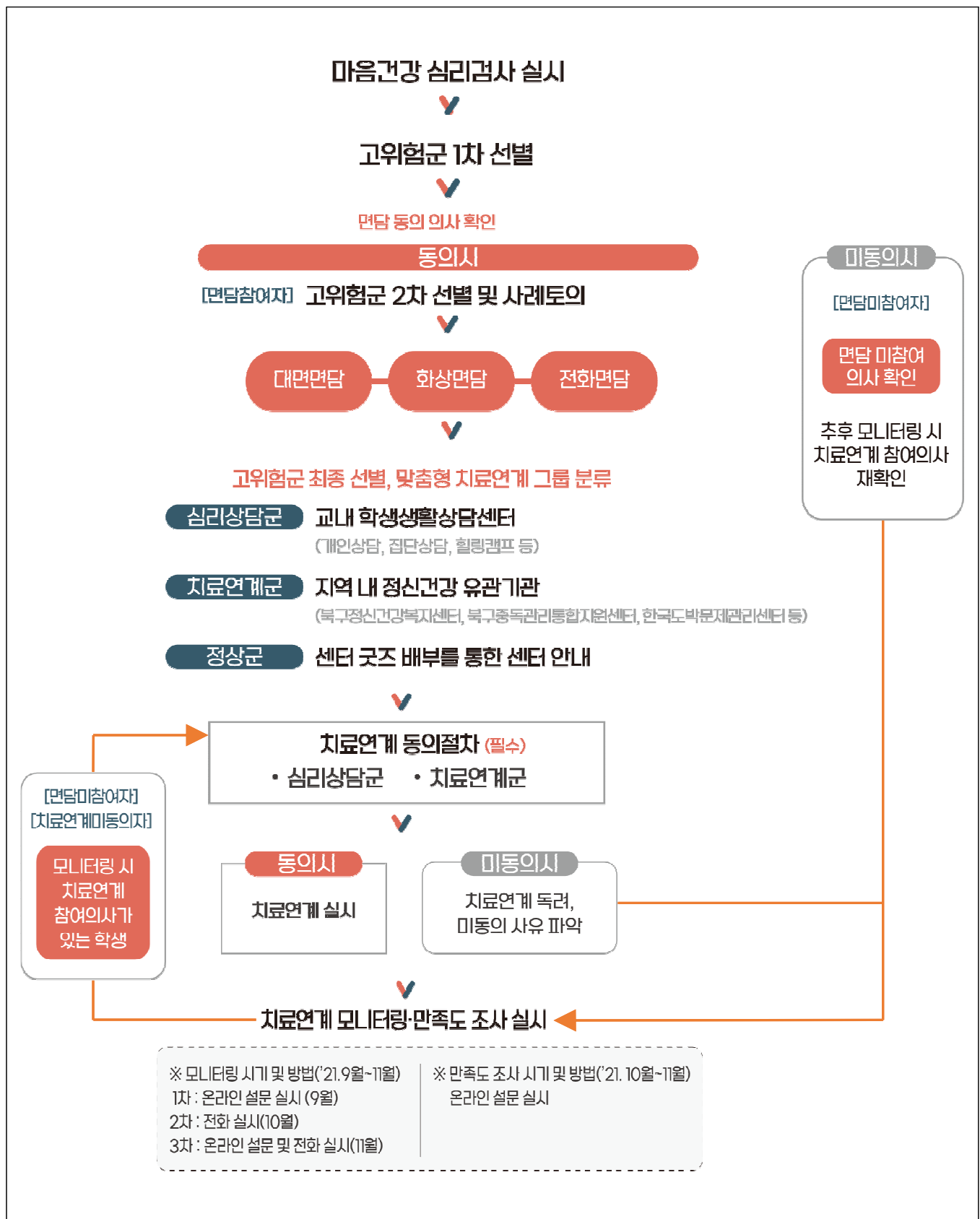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2021학년도 3월 교육부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 수립 및 시행 안내’ 지침에 따라 전남대학교 재학생 대상 ‘마음건강 심리진단 및 고위험군 치료연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마음건강 고위험 수준에 따른 전문기관 치료연계 및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교내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구체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앞으로 아래의 목차와 같이 ‘마음건강 심리진단 및 고위험군 치료연계’ 결과를 **매주 1회, 총 10회** 발송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음건강 고위험 학생을 더 잘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총 10회 발송 이후 팜리포트 종합 파일을 전남대학교 포털-게시판-자료실-보고서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팜리포트 목차

연번	배부 일시	제 목	내 용
1	3. 14.(월)	“마음건강 심리진단 및 고위험군 치료연계 사업을 소개합니다”	마음건강 심리진단 및 고위험군 치료연계 사업 개요, 팜리포트 목차 등
2	3. 21.(월)	“심리검사 결과”	심리검사 전체 결과
3	3. 28.(월)	“마음건강 고위험 학생의 1:1 면담 실시 결과”	심리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1차 선별된 학생에 대한 1:1 면담 실시 결과
4	4. 4.(월)	“마음건강 고위험 학생의 치료연계 모니터링 결과(1)”	고위험군 치료연계 모니터링 결과 (공통 질문)
5	4. 11.(월)	“마음건강 고위험 학생의 치료연계 모니터링 결과(2)”	심리상담군 모니터링 결과
6	4. 18.(월)	“마음건강 고위험 학생의 치료연계 모니터링 결과(3)”	치료연계군 모니터링 결과
7	4. 25.(월)	“마음건강 고위험 학생의 치료연계 모니터링 결과(4)”	치료연계 미동의자, 1:1 면담 미참여자 모니터링 결과
8	5. 2.(월)	“만족도 조사 결과(1)”	정상군 만족도 조사 결과
9	5. 9.(월)	“만족도 조사 결과(2)”	정상군 외 만족도 조사 결과
10	5. 16.(월)	“마음건강 고위험 학생을 위해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언, 학생생활상담센터 소개

○ 마음건강 심리진단 및 고위험군 치료연계 및 모니터링 지원 체계



○ 마음건강 심리진단 및 치료연계 운영 현황

- 마음건강 심리검사 및 1:1 면담을 활용한 재학생 대상 마음건강 심리진단 실시
- 진단 결과를 토대로 관내 정신건강 유관기관(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맞춤형 치료연계 지원
- 치료연계 모니터링 시 치료연계 동의 의사 재확인 후 추가 치료연계 실시, 참여 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

구분	기간	참여 인원 (명)	내용	방법
마음건강 심리검사 실시	2021. 5. 3.(월) ~ 6. 4.(금)	1,370	·간이정신진단검사를 활용한 마음건강 심리검사 실시	온라인 실시
검사 결과 분석	2021. 6월 중	1,319	·실시자 총 51명 제외 - 비일관성>T70 38명, 외국인 학생 10명, 중복응답 2명, 불성실응답 1명	-
고위험군 선별 (1차)	2021. 6. 7.(월) ~ 6. 18.(금)	369	·마음건강 심리검사 결과 및 고위험군 학생 확인 (증상척도T>70)	센터 내부
고위험군 선별 (2차)	2021. 6. 21.(월) ~ 7. 23.(금)	135	·고위험군 학생 1:1 면담 및 사례토의	대면, 화상, 전화 등
맞춤형 치료연계	2021. 7. 12.(월) ~ 8월 중	143	·맞춤형 치료연계 실시 (상담센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면담 실시자 135명+모니터링 후 추가 치료연계 대상 8명 (추가 치료연계는 9~11월 중 실시)	
치료연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2021. 9. 13.(월) ~ 11. 24.(수)	154	·맞춤형 치료연계 모니터링 시 치료연계 동의 의사 재확인 후 추가 치료연계 실시 ·면담 참여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온라인 설문, 전화 등
결과보고서 발간	2022. 2. 9.(수)	-	·결과보고서 발간 및 교내 배부(250부)	출판 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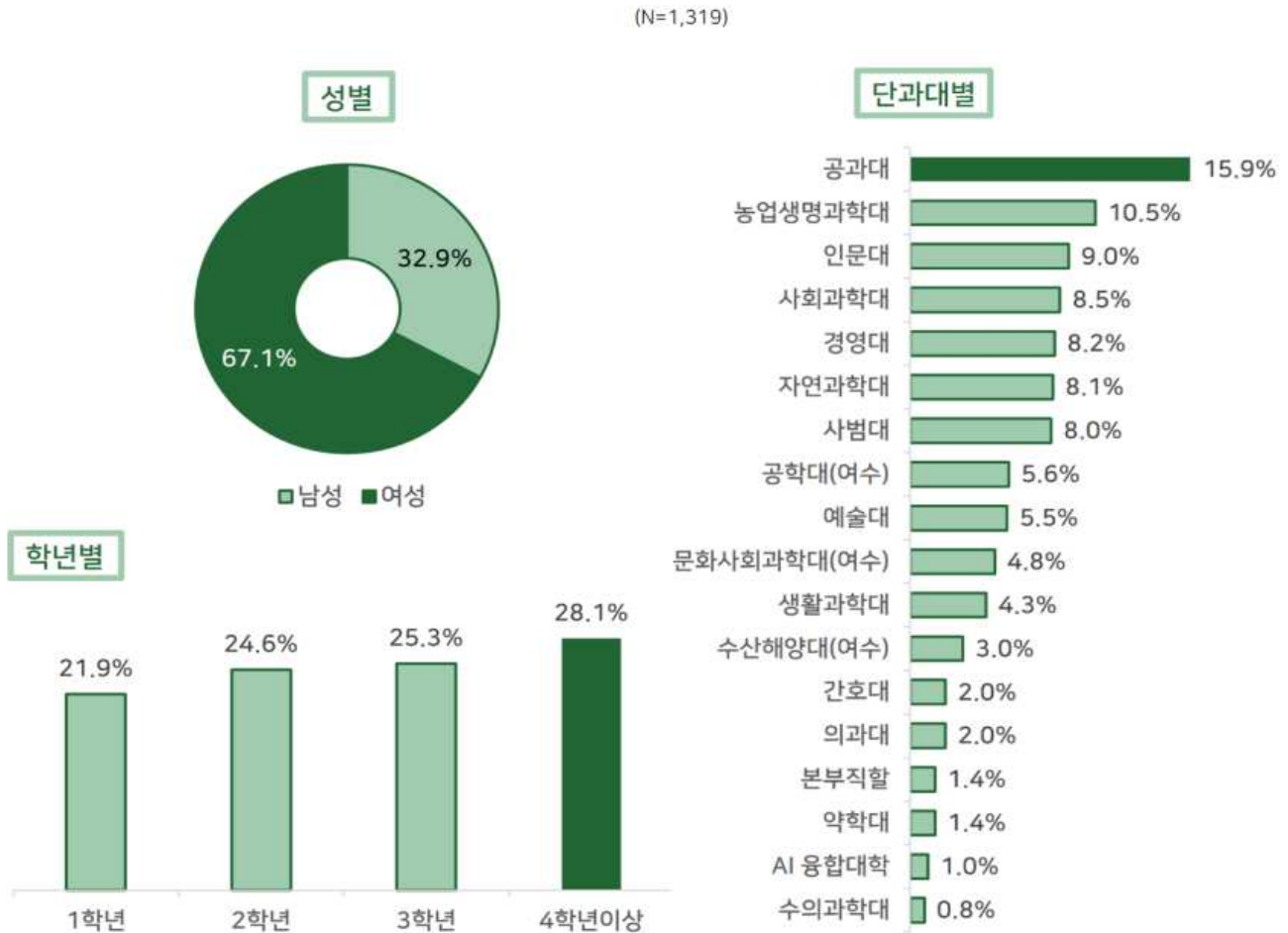
○ 맞춤형 치료연계 세부 운영 현황

분류군	연계기관	분류 기준	분류군 해당 인원	연계 진행 인원
치료연계군 (29명, 2%)*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조울증, 조현병 등 약물치료 필요	17명	15명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게임·스마트폰 과의존, 알코올중독 등	6명	2명
	기타	타지역 거주, 사회복무 근무 등	6명	6명
심리상담군 (65명, 5%)*	학생생활상담센터(광주)	정신과 치료 중 또는 심리 정서적 지원 필요	56명	27명(48%)**
	학생생활상담실(여수)		9명	3명
소계			94명(7%)*	53명
치료연계 미동의자 (17명, 1%)*	-	치료연계 미동의	17명	17명
정상군 (32명, 2%)*	-	일상생활 적응 등 증상 경험 없음	32명	32명
합계			143명(11%)*	102명(71%)**

*%는 1,319명(결과 분석 사례 수)에 대한 비율
 **%는 56명(학생생활상담센터(광주)) 연계 대상자 수에 대한 비율
 ***%는 143명(총 연계 대상자 수)에 대한 비율

“심리검사 결과”

마음건강 심리진단을 위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70명의 학생이 참여함. 이중 결과 분석에 부적합한 51명(비일관성 척도 $T > 70$ 인 학생 39명, 외국인 학생 10명, 중복응답 2명, 불성실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1,319명의 심리검사 결과를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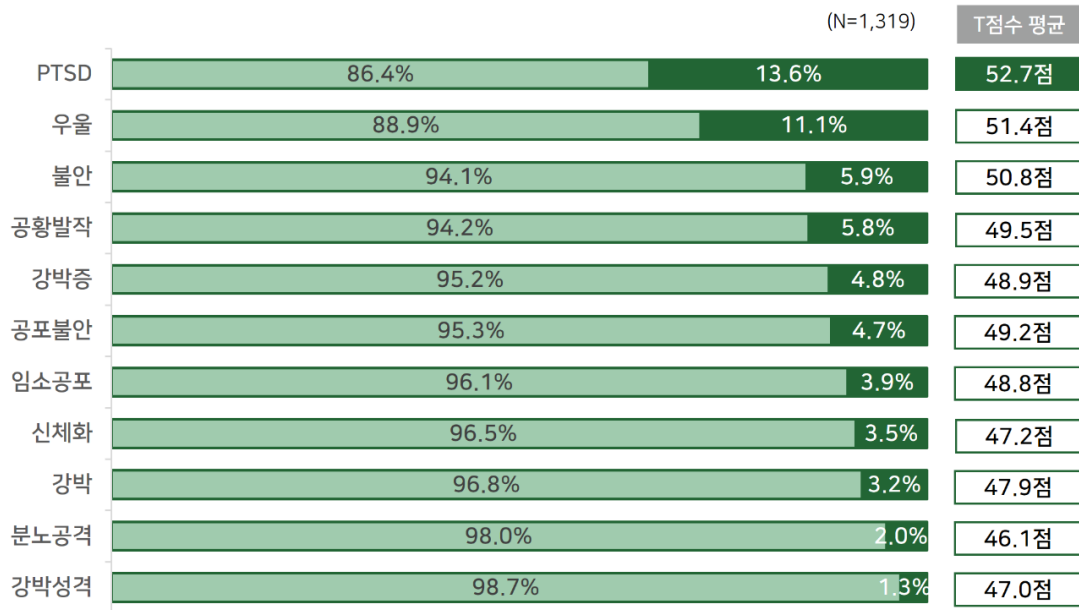


[그림 1] 응답자 특성

심리검사 결과는 정서문제, 현실적응문제, 기타 영역으로 나뉘고, 총 20개 지표임.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T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정상군, T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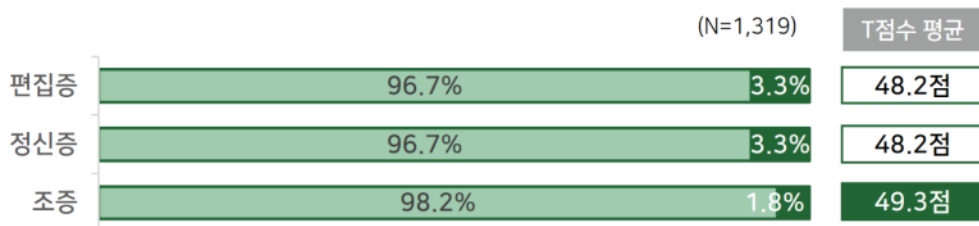
※ 강박은 '강박증, 강박성격'의 상위 지표, 공포불안은 '공황발작, 임소공포증'의 상위 지표, 스트레스 취약성은 '대인민감성, 낮은 자기조절력'의 상위 지표임.

정서문제 영역에서 PTSD의 고위험군 비율이 13.6%, T점수 평균 52.7점으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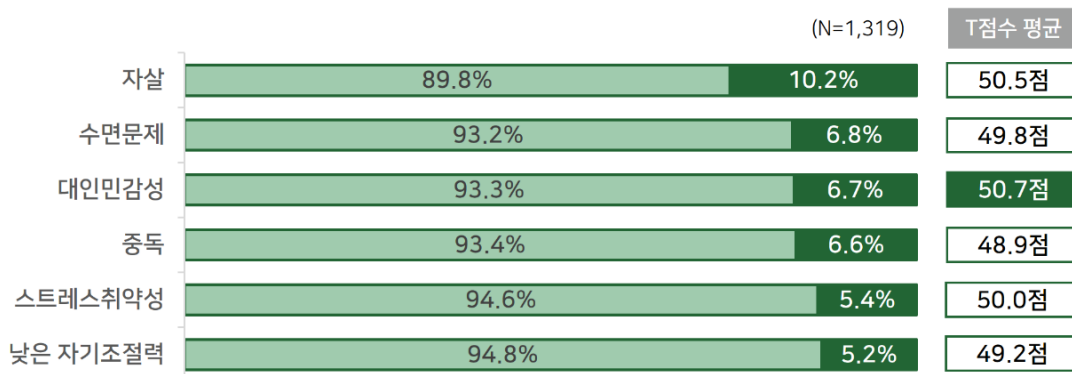
[그림 2] 정서문제 영역

현실적응문제 영역에서 편집증, 정신증의 고위험군 비율이 각 3.3%로 가장 높음. T점수 평균은 조증 49.3점으로 가장 높음.



[그림 3] 현실적응문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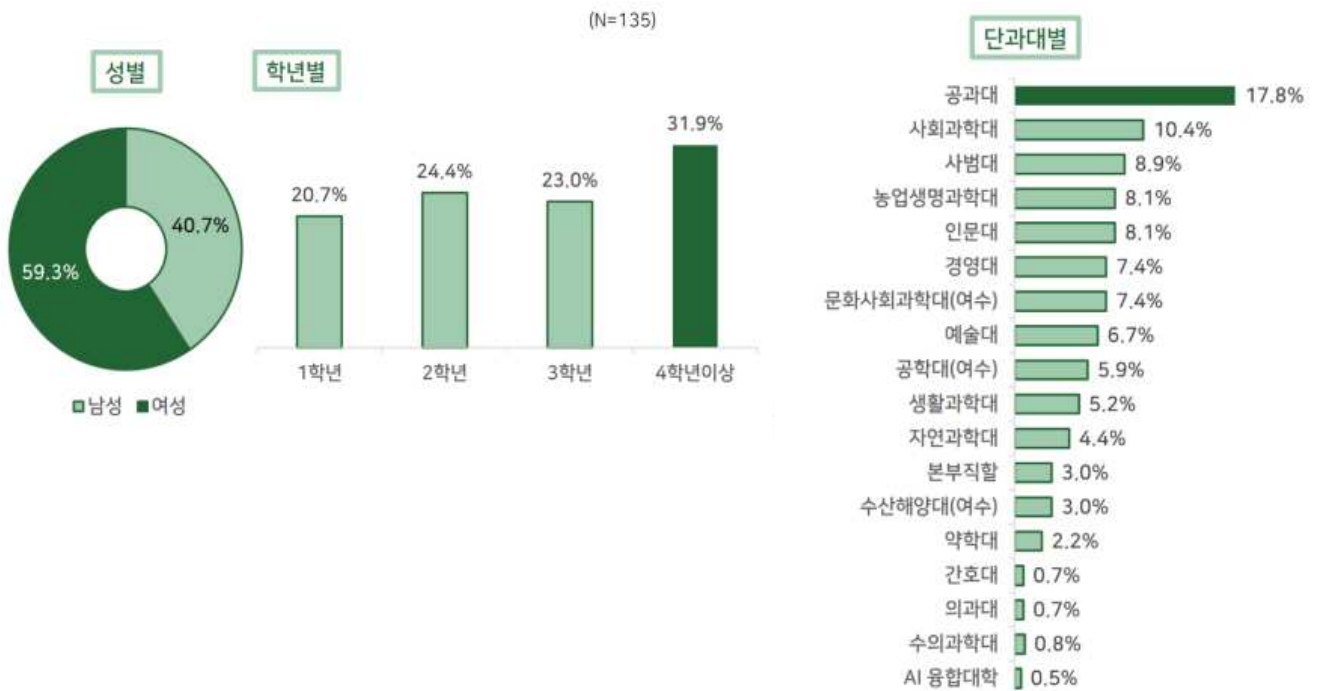
기타 영역에서 자살 요인의 고위험군 비율이 10.2%로 가장 높음. T점수 평균은 대인민감성 50.7점으로 가장 높음.



[그림 4] 기타 영역

“마음건강 고위험 학생의 1:1 면담 실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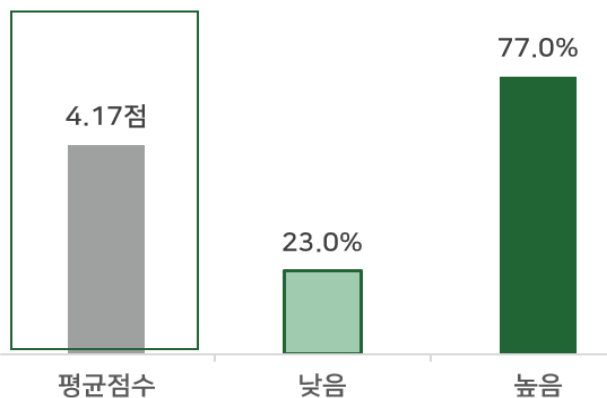
마음건강 심리검사 결과 증상척도(T>70) 1개 이상인 학생을 1차 고위험군으로 선별(369명), 이 중 면담 참여에 동의한 135명을 대상으로 1:1 면담을 실시함.



[그림 1] 면담 참여자 특성

1:1 면담을 통해 확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음.

1) 고위험 증상의 실제 경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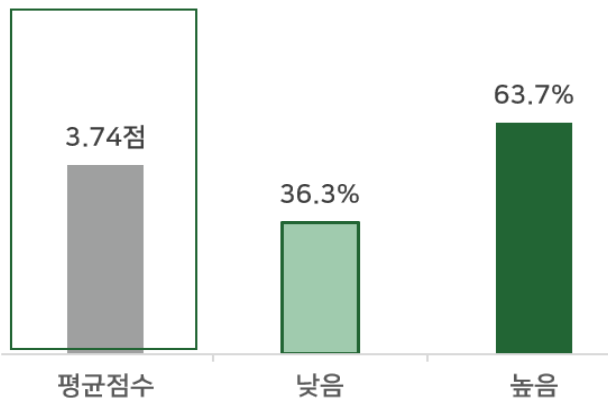


심리검사 결과 T>70인 척도의 고위험 증상을 설명하고, 이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지 6점 척도로 확인함.

①전혀 없다 ②매우 낮다 ③낮다 ④약간 높다 ⑤높다 ⑥매우 높다

고위험 증상의 실제 경험 수준이 높은 학생(4~6점 응답)은 77%로, 과반수가 심리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고위험 증상을 실제로 경험함.

2) 고위험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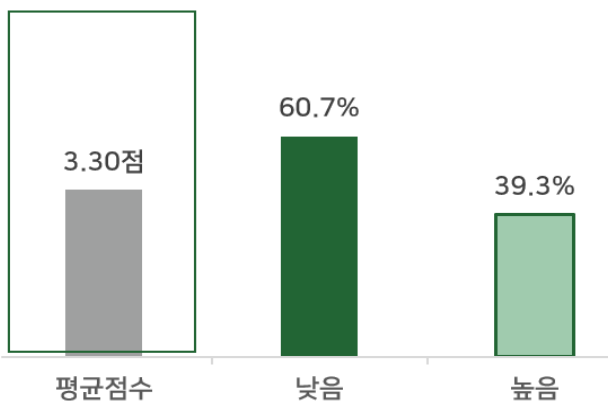


1)에서 확인된, 실제로 경험 중인 고위험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수준을 6점 척도로 확인함.

①전혀 없다 ②매우 낮다 ③낮다 ④약간 높다 ⑤높다 ⑥매우 높다

일상생활의 어려움 수준이 높은 학생(4~6점 응답)은 63.7%로, 과반수가 고위험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함.

3) 대학생활 적응 수준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6점 척도로 확인함.

①전혀 없다 ②매우 낮다 ③낮다 ④약간 높다 ⑤높다 ⑥매우 높다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낮은 학생(1~3점 응답)은 60.7%로, 과반수가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함.

1:1 면담 결과에 따라 맞춤형 치료연계 그룹을 아래와 같이 분류함.

심리상담군 (59명, 43.7%)	1)고위험 증상의 실제 경험 수준 4이상, 2)고위험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수준 4이상, 3)대학생활 적응 수준 3이하일 경우 심리상담군으로 분류해 학생생활상담센터 1:1 심리상담을 받도록 안내함.
치료연계군 (32명, 23.7%)	1), 2), 3)을 충족하면서 약물치료가 필요하거나, 중독 문제(알코올, 게임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연계군으로 분류해 관내 정신건강 유관기관(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연계함.
치료연계 미동의자 (26명, 19.3%)	심리상담군, 치료연계군으로 분류되는 학생이나 맞춤형 치료연계 참여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임. 추후 치료연계 모니터링 시 동의 의사를 재확인함.
정상군 (18명, 13.3%)	심리검사 결과와 달리 1), 2), 3) 문항에서 고위험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임. 센터 굿즈를 배부하고, 추후 필요 시 상담센터 이용 방법을 안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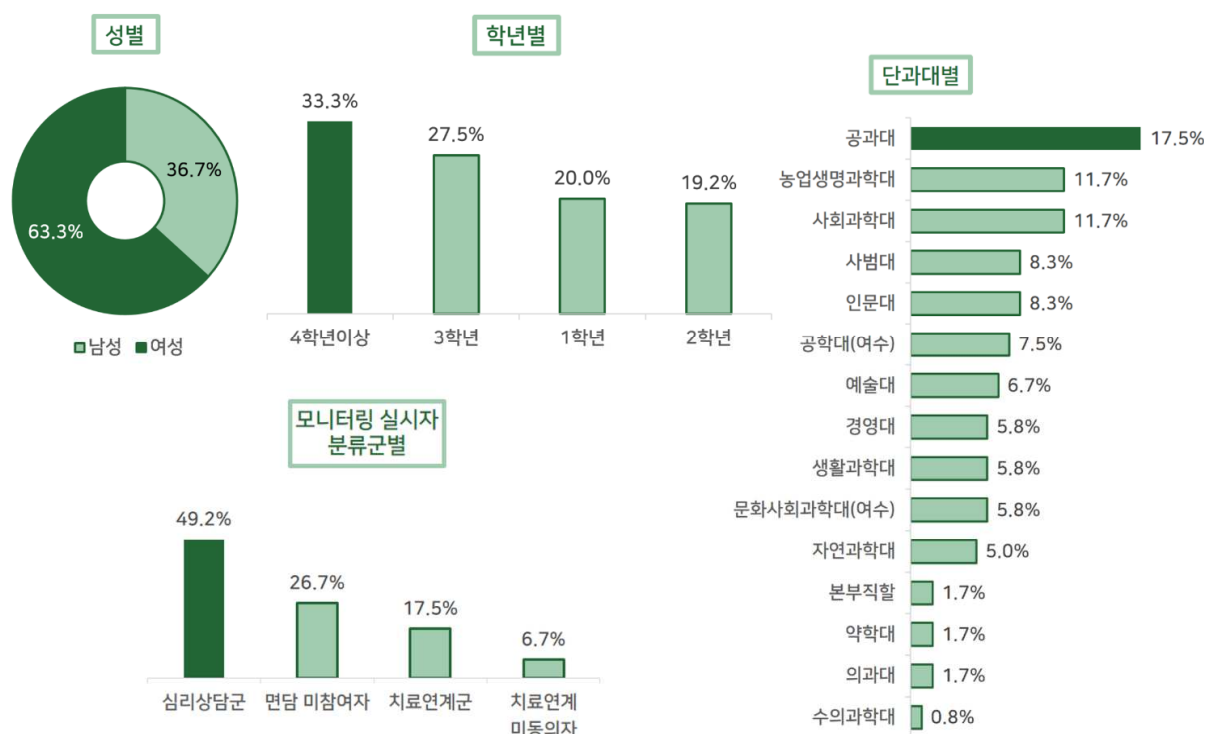
“마음건강 고위험 학생의 치료연계 모니터링 결과(1)”

마음건강 심리검사 결과 1차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학생(369명) 대상으로 치료연계 모니터링을 실시함.
대상에 따른 모니터링 질문은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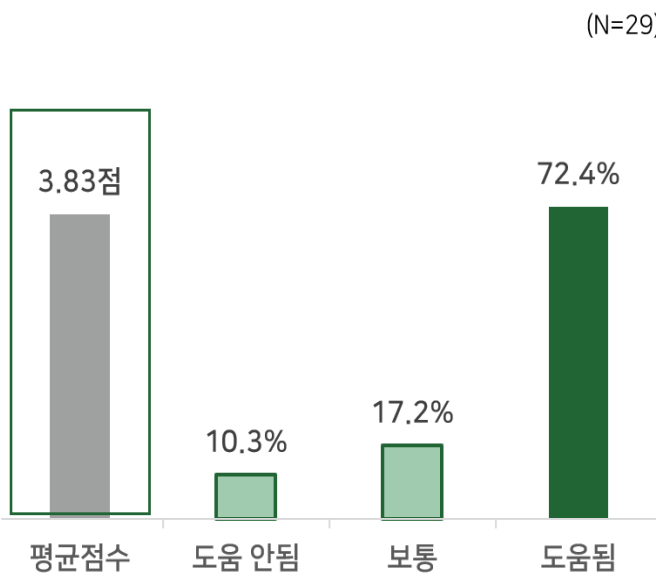
대상			모니터링 질문	
1차 고위험군 (369명)	면담 참여자 (135명)	정상군 (18명)	·모니터링 미 실시	·마음건강 심리진단 참여 전 상담센터 이용 경험 및 도움도 ·향후 상담센터 이용 의향
		치료연계 동의자 (심리상담군 59명, 치료연계군 32명)	·치료연계 이용 여부 및 도움도 ·치료연계 이후 대학 및 일상생활 적응 어려움 수준 확인	
		치료연계 미동의자 (26명)	·마음건강 고위험 영역 증상 확인 ·치료연계 동의 의사 재확인	
	면담 미참여자 (234명)			

이 중 모니터링에 참여한 학생은 120명이고, 참여자 특성은 아래와 같음.

(N=120)



1) 학생생활상담센터 이용 경험 및 도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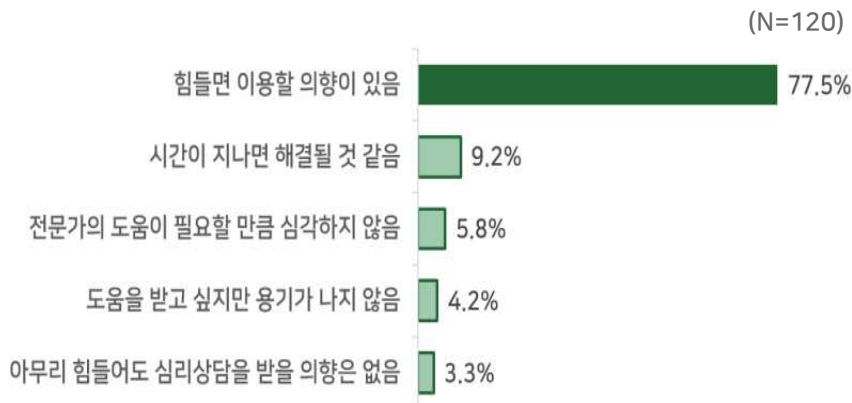


모니터링에 참여한 120명 중 마음건강 심리진단에 참여하기 전 학생생활상담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44.6%(29명)였음.

학생생활상담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29명)을 대상으로 상담센터의 도움도를 5점 척도로 확인함.
①전혀 도움 안 됨 ②도움 안 됨 ③보통 ④도움이 됨 ⑤매우 도움이 됨

72.4%(4~5점 응답)의 학생이 상담센터 이용 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심리상담 서비스가 대체로 만족스러웠음을 알 수 있음.

2) 향후 상담센터 이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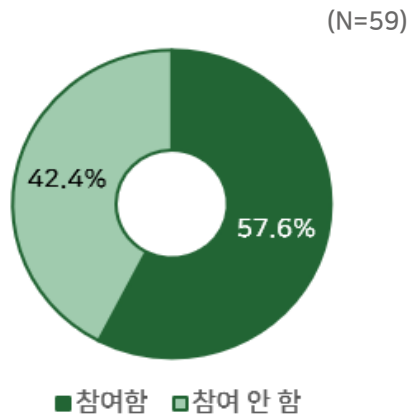
모니터링에 참여한 120명에게 향후 상담센터 이용 의향을 확인함.

77.5%의 학생이 '힘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상담센터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음.

“마음건강 고위험 학생의 치료연계 모니터링 결과(2)”

모니터링 참여자 120명 중 1:1 면담 이후 심리상담군으로 분류된 59명에게 치료연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1:1 심리상담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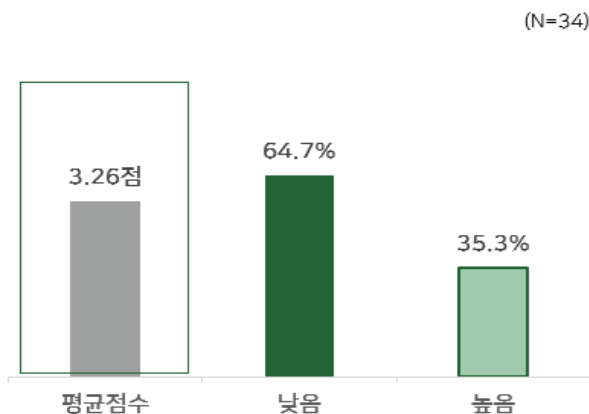


심리상담군 학생들에게는 면담 이후 학생생활상담센터 1:1 심리상담을 안내했고, 모니터링 시 참여 여부를 확인함.

심리상담군 59명의 학생 중 34명(57.6%)이 참여함.

참여하지 않은 25명(42.4%)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시간이 없어서'가 53.6%로 가장 많았음. 이외 '상담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곳을 이용하고 있어서'가 각 10.7%였음.

2) 1:1 심리상담 참여 후 일상생활 어려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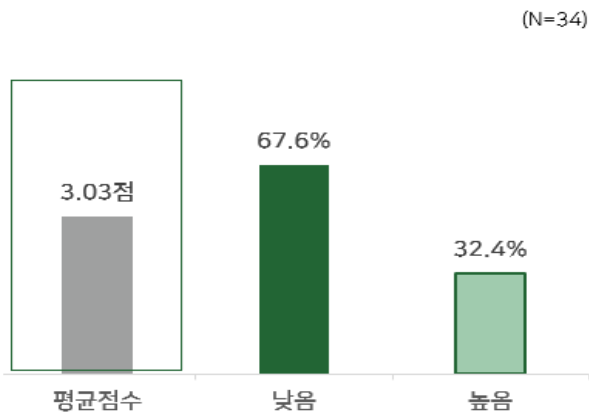


1:1 심리상담에 참여한 34명에게 1:1 심리상담을 받은 후 일상생활 어려움 수준을 6점 척도로 확인함.

①전혀 없다 ②매우 낮다 ③낮다 ④약간 높다 ⑤높다 ⑥매우 높다

64.7%(1~3점 응답)의 학생이 1:1 심리상담 참여 후 일상생활의 어려움 수준이 낮아졌다고 응답함.

3) 1:1 심리상담 참여 후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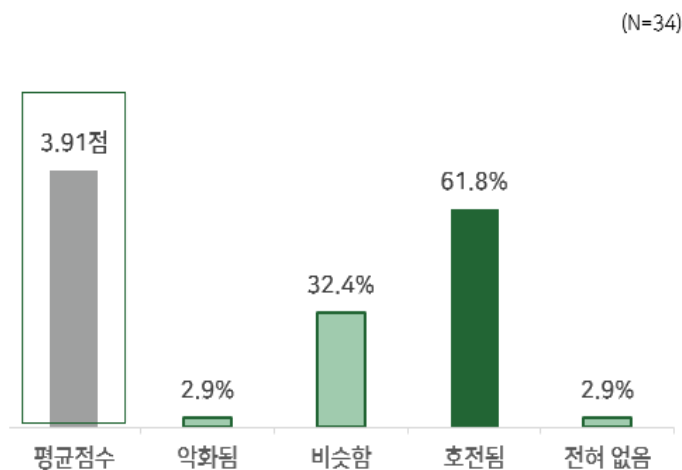


1:1 심리상담에 참여한 34명에게 1:1 심리상담을 받은 후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 수준을 6점 척도로 확인함.

①전혀 없다 ②매우 낮다 ③낮다 ④약간 높다 ⑤높다 ⑥매우 높다

67.6%(1~3점 응답)의 학생이 1:1 심리상담 참여 후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 수준이 낮아졌다고 응답함.

4) 1:1 심리상담 참여 후 심리적 어려움(스트레스)의 호전도



1:1 심리상담에 참여한 34명에게 1:1 심리상담을 받은 후 심리적 어려움(스트레스)의 호전도를 6점 척도로 확인함.

①매우 악화되었다 ②악화되었다 ③비슷하다 ④호전되었다
⑤매우 호전되었다 ⑥심리적 어려움(스트레스)이 전혀 없다

64.7%(4~6점 응답)의 학생이 1:1 심리상담 참여 후 심리적 어려움(스트레스)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응답함.

따라서 1:1 심리상담에 참여한 학생 중 약 66%가 1:1 심리상담을 받은 후 일상·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어려움 수준이 호전된 것으로 보아 1:1 심리상담이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함.

“마음건강 고위험 학생의 치료연계 모니터링 결과(3)”

모니터링에 참여한 **치료연계군 21명**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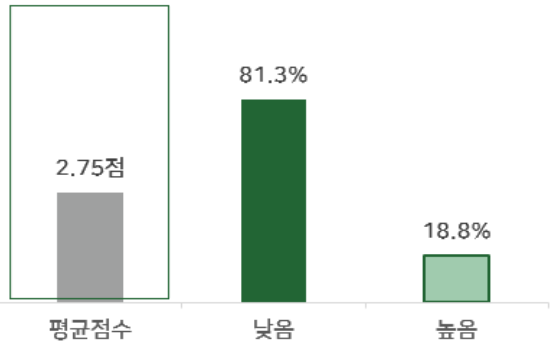
면담 이후 치료연계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에게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마인드링크),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심리치료를 연계함. 타지역에 거주하거나 사회복무 중인 학생들에게는 거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사회복무요원 심리상담 서비스를 안내하고, **치료연계-기타군**으로 분류함.

(단위: 명)

	연계 기관	모니터링 참여	맞춤형 치료연계 프로그램	
			참여	미참여
치료연계군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마인드링크)	13	11	2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	2	3
	기타군	3	3	-
합 계		21	16	5

※ 프로그램에 참여한 16명에게 아래 문항을 확인함. 약 75%가 치료연계 이후 일상·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어려움 수준이 호전됨. 이는 맞춤형 치료연계가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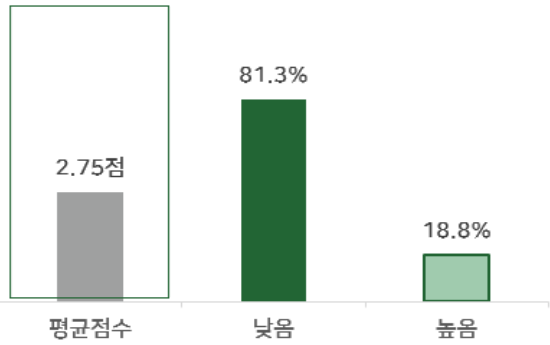
1) 치료연계 이후 일상생활 어려움 수준



치료연계 이후 일상생활 어려움 수준을 6점 척도로 확인함.
①전혀 없다 ②매우 낮다 ③낮다 ④약간 높다 ⑤높다 ⑥매우 높다

81.3%(1~3점 응답)의 학생이 치료연계 이후 일상생활의 어려움 수준이 낮아졌다고 응답함.

2) 치료연계 이후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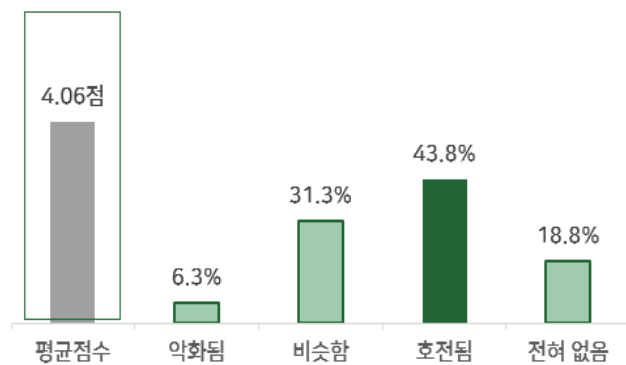


치료연계 이후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 수준을 6점 척도로 확인함.

①전혀 없다 ②매우 낮다 ③낮다 ④약간 높다 ⑤높다 ⑥매우 높다

81.3%(1~3점 응답)의 학생이 치료연계 이후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 수준이 낮아졌다고 응답함.

3) 치료연계 이후 심리적 어려움(스트레스)의 호전도



치료연계 이후 심리적 어려움(스트레스)의 호전도를 6점 척도로 확인함.

①매우 악화되었다 ②악화되었다 ③비슷하다 ④호전되었다
⑤매우 호전되었다 ⑥심리적 어려움(스트레스)이 전혀 없다

62.6%(4~6점 응답)의 학생이 치료연계 이후 심리적 어려움(스트레스)이 호전되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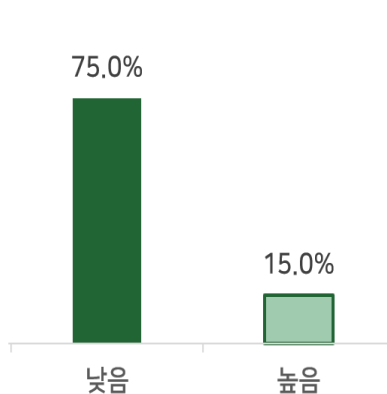
“마음건강 고위험 학생의 치료연계 모니터링 결과(4)”

모니터링에 참여한 치료연계 미동의자 8명, 면담 미참여자 32명에게 맞춤형 치료연계 참여 의사를 재확인하여, 8명에게 추가 치료연계를 실시함.

치료연계 미동의자의 경우 면담 이후 일상생활 및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 수준 및 심리적 어려움의 호전도를 물어봄. 75%의 학생이 면담 이후 일상생활 및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 수준이 낮아졌다고 응답했으나, 심리적 어려움의 호전도는 37.5%만 호전되었다고 응답함.

심리상담군, 치료연계군의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 시 치료연계 미동의자의 심리적 어려움의 호전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맞춤형 치료연계의 참여 유무가 심리적 어려움의 호전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됨.

1) 면담 이후 일상생활 및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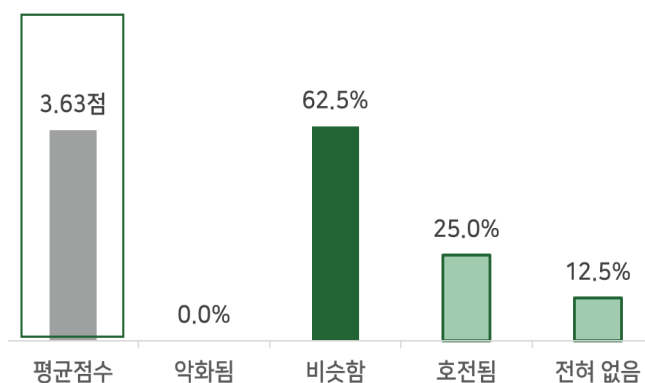


면담 이후 일상생활 및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 수준을 6점 척도로 확인함.
①전혀 없다 ②매우 낮다 ③낮다 ④약간 높다 ⑤높다 ⑥매우 높다

일상생활 어려움 수준의 평균 점수는 3점, 대학생활 적응 어려운 수준의 평균 점수는 2.88점이었음.

75%(1~3점 응답)의 학생이 면담 이후 일상생활의 어려움 수준이 낮아졌다고 응답함.

2) 면담 이후 심리적 어려움(스트레스)의 호전도



면담 이후 심리적 어려움(스트레스)의 호전도를 6점 척도로 확인함.

①매우 악화되었다 ②악화되었다 ③비슷하다 ④호전되었다 ⑤매우 호전되었다 ⑥심리적 어려움(스트레스)이 전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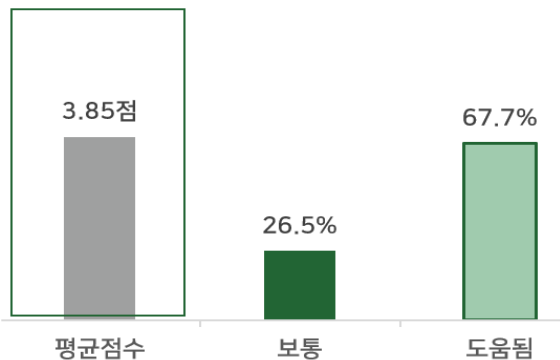
37.5%(4~6점 응답)의 학생이 면담 이후 심리적 어려움(스트레스)이 호전되었다고 응답함.

“만족도 조사 결과(1)”

고위험군 선별 1:1 면담에 참여한 145명의 학생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34명이 응답했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67.7%가 면담을 통해 현재 마음건강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85.3%가 면담 상담원 및 진행방식에 만족한다고 응답함.

1) 면담을 통한 마음건강 상태 이해 도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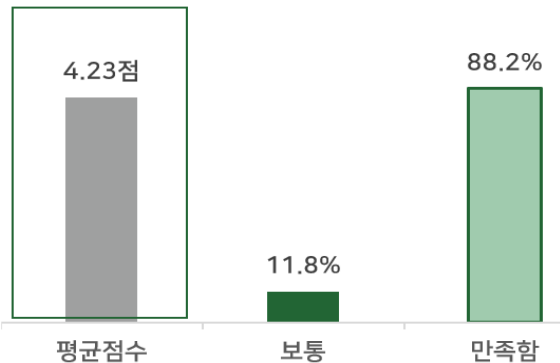


1:1 면담이 마음건강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5점 척도로 확인함.

①전혀 도움 안 됨 ②도움 안 됨 ③보통 ④도움 됨 ⑤매우 도움 됨

67.7%(4~5점 응답)의 학생이 1:1 면담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응답함.

2) 면담 상담원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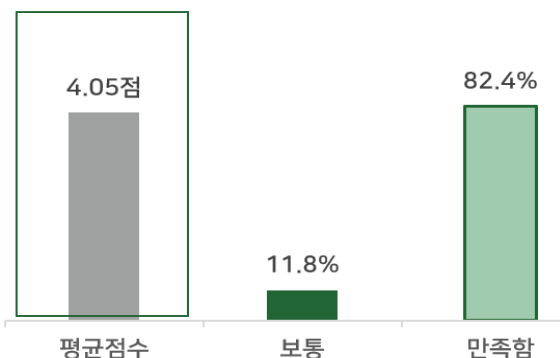


면담 상담원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확인함.

①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②만족스럽지 않음 ③보통 ④만족함 ⑤매우 만족함

88.2%(4~5점 응답)의 학생이 1:1 면담 상담원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함. 상담원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3) 면담 진행방식 만족도



면담 진행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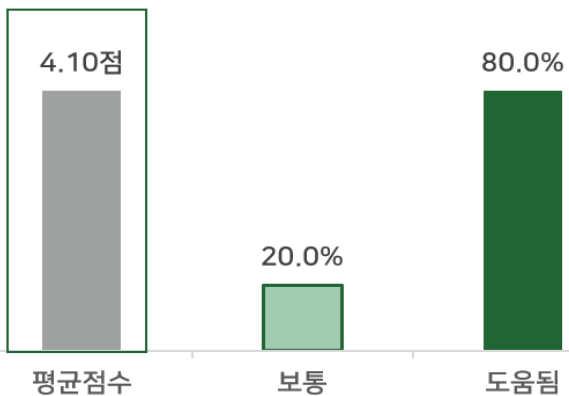
①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②만족스럽지 않음 ③보통 ④만족함 ⑤매우 만족함

82.4%(4~5점 응답)의 학생이 1:1 면담 진행방식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함.

“만족도 조사 결과(2)”

맞춤형 치료연계를 받은 94명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학생생활상담센터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은 학생 10명,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관내 정신건강 유관기관으로 연계된 학생 5명이 응답함. 80%가 학생생활상담센터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고, 60%가 관내 정신건강 유관기관의 치료연계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1) 학생생활상담센터 심리상담 서비스 도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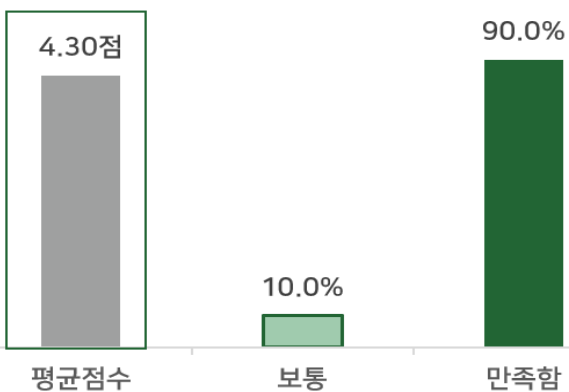


심리상담 서비스(개인상담, 집단상담)가 도움이 됐는지 5점 척도로 확인함.

①전혀 도움 안 됨 ②도움 안 됨 ③보통 ④도움 됨 ⑤매우 도움 됨

80%(4~5점 응답)의 학생이 심리상담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알 수 있고, 학교생활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2)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원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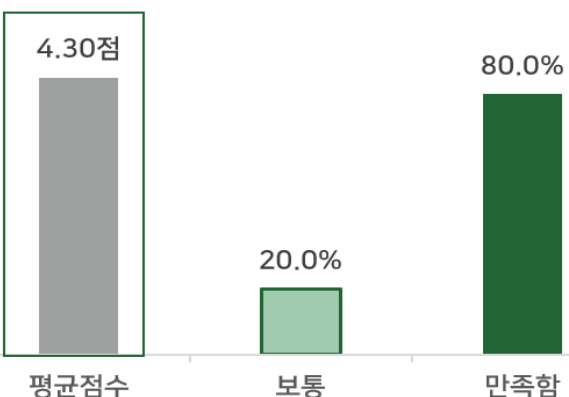


상담원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확인함.

①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②만족스럽지 않음 ③보통 ④만족함 ⑤매우 만족함

90%(4~5점 응답)의 학생이 상담원에게 만족한다고 응답함. 상담원의 공감적이고, 경청하는 태도, 친절함 등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함.

3) 학생생활상담센터 심리상담 서비스 진행방식 만족도



심리상담 서비스의 진행방식(대면, 비대면 병행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확인함.

①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②만족스럽지 않음 ③보통 ④만족함 ⑤매우 만족함

80%(4~5점 응답)의 학생이 심리상담 서비스의 진행방식에 만족한다고 응답함.

“마음건강 고위험 학생을 위해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학생상담을 위한 인력 확충

심리진단 결과 고위험군 비율은 7%(심리상담군 5%, 치료연계군 2%)였음. 이는 전남대학교 전체 학생 25,000명 기준 약 1,750명(고위험군 비율인 7%)의 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 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현재 자발적으로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학생과, 마음건강 고위험군으로 예측되는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 학생생활상담센터의 전문상담인력은 '22.5월 기준 전임상담원2명 혁신지원사업상담원 1명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임. 적정 수준의 가용 전문 상담인력(교육부 권장 학생 1,000명당 1명 수준) 확보로 학내 심리상담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전문상담인력 증원을 통해 심리상담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2. 관내 정신건강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관내 정신건강 유관기관으로 치료연계된학생의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의 어려움,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 심리적 어려움 및 스트레스 수준이 호전되었다는 결과를 보임. 이는 관내 정신건강 유관기관으로의 치료연계가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됨. 본 사업을 통해 마련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확장한다면 지속적인 치료연계를 통해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3. 센터-학과 간 협력 체계 구축

본 사업 계획 시 7,000명 이상의 참여를 예상했지만, 실제 마음건강 심리검사에 참여한 학생은 1,370명이었음.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개입을 위해 심리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 참여율을 높일 필요성이 크게 나타남. 학생생활상담센터와 전남대학교 각 학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학과를 통해 학생에게 센터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한다면, 향후 사업 진행 시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임.